

21세기 윤리를 위한 공동의 틀

(초안)

1999년 3월 30일
1999년 5월 21일 수정
유네스코 철학윤리국 작성

전 문 (前 文)

20세기가 끝나 가는 지금 인류는 엄청난 도전과 새로운 개막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규모의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삶의 바로 그 기초마저 파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위협 또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경제의 위력은 인류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은 또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엄청난 규모로 심화시킵니다. 이런 격차는 해당 사회나 국가의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 상호 간에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여러 영역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전통적인 해결책들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인류에 크게 이바지했던 여러 사상과 제도, 제반 가치와 관행이 점점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근대 산업 문명의 추동력이었던 개인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진보라는 발상은, 다양한 사회와 국가들이 새로운 역사적 현실들과 화해하고자 노력하는 지금,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과제들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이런 지배적 과제들을 인도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들과 사상들의 기초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어떤 문명도 불가능합니다.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가치들이 요구됩니다. 이런 입장은 UN에서 개최한 일련의 인상적인 정부간 회의들, 각종 국제 위원회의 제반 보고자료들, 다양한 학술기관과 정치 단체 및 종교 기관의 여러 선언, 그리고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지난 10년 간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계 사상가들의 업적에서 공유되고 있는 견해입니다. 만일 윤리적 가치들 및 원칙들의 기초에 대한 공유된 약속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다양한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상이한 국민들간의 평화롭고 생산적인 협력은 분명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변의 자극들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문화권과 여러 사회에서 요구되는 생동적인 윤리적 가치들 및 원칙들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 과제는 윤리적 가치들과 원칙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가치들과 원칙들을 하나로 묶어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정합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과 원칙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문화권의 일상 생활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공동선에 대한 일부 입장들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공동의 윤리적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인류가 다함께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윤리적 선언의 보편성은 이 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들과 열망들의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현대 사회의 특징인 문화 다원주의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로 인한 도전 역시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다양한 견해들과 상이한 문화권들의 열망들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보편성 개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 보편성 개념은 두 가지 구체적인 사실, 즉 다양한 문화권의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윤리적 관행의 공통성과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과제의 공통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인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식화된 다음 네 가지 항목은 일군의 윤리적 가치들과 원칙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군의 윤리적 가치들과 원칙들이 하나로 결합될 때 이런 도전을 적절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항목 하나하나,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성, 제반 권리와 책임의 자유로운 행사에서 인간의 자기 실현, 개인과 공동체의 상보성, 그리고 정의에 기초한 평화 등 각각 균형 있는 조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서 언급되는 각각의 원칙은 다양하면서 심지어 극단적이기조차 한 가치들과 원칙들이 허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입장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과 극단성은 실천 과정에서 봉착하는 난국들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권들, 사회들, 종교들 그리고 세계관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의 원천들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원칙은 역동적인 관계, 즉 서로 상충하기는 하지만, 결코 화해불가능하지는 않은 가치들 간의 창조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명료하게 합니다. 각각의 원칙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역동적 관계의 이상적인 종착지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가장 적합한 반성적 평형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인류 공동체들은,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윤리적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존과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이나 어떤 개인 혹은 심지어 국가가 치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로 인해 자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실천의 범위가 더 이상 우리 가정, 우리 사회, 혹은 우리 국가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유되고 있는 윤리와 부합하여 실천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

이제 공통의 윤리적 틀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존과 번영의 과제들에 대해 숙고해

보기 위해 모든 문화,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개인들을 이 공통의 윤리적 틀로 초대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21세기의 윤리로 초대하여 함께 참여하고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공통의 윤리적 틀은, 인류의 대화를 위한 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틀은 장구하면서도 험난한 진화적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런 진화의 과정에서, 인류는, 분열을 야기하는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문제들의 공통성으로 말미암아 공통의 윤리적 비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틀은,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의를 통해, 개방적인 방식으로 발전되어야만 하는 틀입니다.

I 자연에 대한 인류의 관계

1. 자연을 인과적-기계론적 법칙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입장 덕분에 인류는 자연을 통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자연환경의 파괴와 인간의 소외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종과 자연간의 지속 가능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2. 자연은 유한하기에, 우리의 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복잡성과 안정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관리하는 방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구들을 만족시키기란 어렵기에, 우리는 자연의 복원력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우리의 욕구를 자연이 정한 한계들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3.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빈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류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발전이 지속된다면, 생명과 건강한 환경에 대한 미래 세대들의 권리는 위태롭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보라는 질로 그 중심을 이동시킴으로써 단기적 사고 방식 및 눈앞의 즉각적인 만족을 장기적인 사고 방식과 상호 조정하여 양자간의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4. 소비는, 사람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때, 인간의 복지에 기여합니다. 과도한 소비는 자원의 기반을 훼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소비는, 타인들의 복지를 손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선택들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이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II 인간의 자기 실현

1.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개성에서 볼 때 고유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모든 이는 각자의 전통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하며, 또한 이 전통을 통해 공동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은 개방성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공간과의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2. 정직은 신뢰를 증진합니다.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간의 제반 관계의 기초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회의 가능성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윤리적 삶의 토대가 되는 선결 전제입니다.

3.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정서를 앞세운다면,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과 그 귀결들을 명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훼손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성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할 경우, 인간은 냉혹하게 계산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와 정서는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상보적인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4.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삶이란 궁극적으로는 천박한 것이자 자기도취입니다. 초월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삶은 종종 왜곡되어 광신주의와 인생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심층적 구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좋음이라는 관념과 연관되어 있는 적극적인 도덕적 직관을 계발해야 합니다.

5. 인간은 정신적 자기 실현과 물질적인 자기 실현을 요구하는 정신과 신체를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부에 대한 추구는 반드시 정신의 발전을 통해 조절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외면적 만족은 정신과 영혼의 내면적 만족을 통해 고양되어야 합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III 개인과 공동체

1. 모든 사람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개인이 갖는 일군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 일원인 가족, 사회, 국가, 인류 등 다양한 관계에서 그 중심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제반 권리 및 책임의 중심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자신들의 독특한 가치들에 따라 살아가는 상이한 집단들의 주장들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자기 중심적이거나 배타주의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중심성은 기꺼이 대화에 임하고 서로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3. 질서가 없다면, 무정부상태가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없다면, 공동체는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과 공동선에 대한 관심을 상승적으로 고양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양자간의 평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4. 우리는 곤경에 처한 국민들과 공동체들에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에 계속 의존할 경우, 창조성과 주도권은 약화됩니다. 따라서 도움은 도움을 받는 이들의 창조성과 주도권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대화만으로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없는 행동은 종종 의도하지 않은 공격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화목한 공존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모든 행동에 대화가 동반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IV 정의

1.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개인들이, 타인들을 위한 유사한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면, 자신의 잠재성들을 가능한 한 가장 충분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등의 요구들과 자유의 요구들을 상호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2. 세계화는 인간의 복지를 고양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는 개인들 사이에서, 집단들 사이에서,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격차를 확장시킵니다. 따라서 세계화는 약소 국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과 개인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평화가 지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 적절한 주거 환경,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을 보장하는 것,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는 것, 나아가 보건의료, 안전한 물,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접근권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백한 정책 목표입니다.

4. 침략과 불관용에 맞서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은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적 수준에서만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그 효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법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5. 법률을 지나치게 많이 제정하면, 개인의 책임감이 약화됩니다. 법률을 지나치게 적게 제정하면, 무정부와 무질서로 가게 됩니다. 법률 제정은, 집단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 양자 모두에 이바지할 때, 최선입니다.